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12. 6.(금)

철도노조 파업 상황(12.6(금), 15시) : 운행률 68.8%, 파업참가율 27.2%

- 국토부 2차관, 서울역 찾아 주말 대비 수송대책 점검… “직원 안전사고 예방 지시”

□ 2월 6일 **15시 기준** 출근대상자 23,983명 중 파업참가자는 6,555명으로 **파업참가율*은 27.2%**(12.5(목) 15시 대비 5.1%p↑)이다.

* ‘23년 파업 둘째 날 파업참가율 42.9%

□ **열차운행 현황**(12.6. 15시 기준)은 **파업영향**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**평시대비 68.8%**(12.5(목) 15시 대비 8.8%p↓) **운행*** 중이며,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**계획대비 100.5% 운행 중**이다.

* KTX 68.1%, 여객열차 58.4%, 화물열차 20.6%, 수도권전철 75.1%

□ 한편, 12월 6일(금) 오후 **파업 후 첫 주말을 앞둔 가운데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**(비상대책본부장)은 서울역을 방문하여 열차운행 현황 및 코레일 파업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.

□ 백 차관은 비상수송대책을 보고 받고 “철도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**국민 불편이 큰 상황**”이라면서, 오늘 새벽 서울교통공사 노사간 극적인 합의가 된 것처럼 철도노조도 **누적되는 국민 불편**을 감안하여 **조속히 철도현장 업에 복귀**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○ 아울러, “주중보다 **주말에는 KTX 등 장거리 철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**되는 만큼, **국민 불편 최소화**를 위해 **비상수송대책 이행**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**가용한 자원**을 **총동원**하여 **안전확보와 혼잡도 관리**에 나설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, “파업이 지속되면서 **현장에 있는 근무자의 피로가 누적**될 수 있어 작은 소홀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**안전관리에 더욱 유념**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○ “파업중에도 **철도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근무자의 안전사고 예방**에 만전을 기하고, 대체인력 등 철도종사자의 **정상적인 업무를 방해**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**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**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비상수송대책본부	책임자	상황실장	박선동 (044-201-4802)
		담당자	총괄반장	김경태 (044-201-480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